

화순군 '8경' 선정, 관광객 유치 팔 걸었다

적벽·운주사·이서 규봉암·고인돌 유적지·세랑지 등 홍보·여행상품 개발...대표 관광명소 집중 육성 나서

화순군이 지역대표 명소로 '화순 팔경(八景)'을 선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일 화순에 따르면 화순을 대표하는 8경은 ▲천하 제일경 화순적벽 ▲천불천담 미스터리 운주사 ▲백아산 하늘다리 ▲고인돌 유적지 ▲수만리 철쭉공원 ▲이서 규봉암, ▲연동리 숲정이 ▲세랑지 등이다.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호에 있는 화순적벽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으나, 지난 2014년 10월 30여년 만에 개방됐다. 화순적벽은 개방 후 1년 6개월 만에 5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운주사는 여는 사찰과는 달리 울타리도 문도 없는 낮은 산등성이·계곡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불상과 불타이 즐비하다. 특히 운주사 내에 있는 미처 일으며 세우지 못했다는 와불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

상이 열린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백아산 하늘다리는 중 756m지점의 마당바위와 절터 바위를 연결하는 연장 66m, 폭 1.2m의 산악 현수교량으로 최대 13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다리 중앙에 강화유리 조망창 3곳이 설치돼 하늘 위를 걷는 듯 짜릿한 스릴도 느낄 수 있다.

화순고인돌유적지는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 3km 구간에 596기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100톤 이상의 커다란 고인돌 수십기와 280여톤의 초대형 고인돌이 있는데다 축조과정을 알 수 있는 채석장(採石場)이 함께 존재해 동북아시아의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중요 자료로, 지난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현재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는 50억원

◇화순 팔경

- ▲천하 제일경 화순적벽
- ▲천불천담 미스터리 운주사
- ▲백아산 하늘다리
- ▲고인돌 유적지
- ▲수만리 철쭉공원
- ▲이서 규봉암
- ▲연동리 숲정이
- ▲산벚꽃 유명한 세랑지

을 들여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최근 착공했다.

화순을 세랑리에 있는 세랑지(細良池)는 산벚꽃이 활짝 핀 4월 중순 무렵이면 전국의 사진작가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명소다. 잔잔한 호수에 드리운 연분홍 산벚꽃과 연꽃빛 버들, 질푸른 삼나무가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무릉도원의 신비로운 정경을 연출한다.

2013년 미국 CNN의 'CNN Go'가 '한

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중 한곳으로 선정하면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동북면 연동리에 자리한 숲정은 동북천을 따라 물결이 넘쳐 마을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많은 물과 울창한 숲 덕분에 여름철 피서지로도 사랑받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아름다운 마을숲'에 선정되기도 했다.

규봉암은 돌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규봉에 알을 품듯 절집이 들어서 있는 암자다. 규봉암 주변에는 은신대, 삼존석, 십이대, 광석대, 풍혈대, 신평대 등의 기암괴석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수만리 철쭉공원은 매년 5월이면 철쭉꽃이 만발해 상춘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만연산과 안양산, 무등산 등과 어울려 한국의 알프스로도 불린다.

구중군 화순군수는 "화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관광명소 8곳을 발굴했다"며 "화순 8경 홍보를 통해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장성군 '고독사 지킴이단' 발족

자원봉사자 등 88명 구성

장성군이 외로운 노후를 지내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장성군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 88명으로 구성된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노인 및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1인 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빈곤 및 질병,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사회적 고립대상자를 조사하고

독사 위험군 88명을 발굴했다.

위험군에 있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 고독사 지킴이단은 마을 통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8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과 1대1 결연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고령화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는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적극 받아들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힐링 음식' 22종 관광객 입맛 잡는다

시연회 열어 선보여...27일부터 푸드 페스티벌서 판매

화순군이 힐링푸드 페스티벌 때 판매할 대표 음식을 선보이는 등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화순군은 14일 구 능주초등학교 실습장에서 업체별 음식 시연회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개발한 대표 힐링 음식 22종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회 음식은 오는 27일부터 화순 하니문화포시즌센터와 남산 일원에서 열리는 힐링푸드 페스티벌과 도심 속 국화향연 행사장(전통시장 인근)에서 판매된다.

식사로 가능한 명품 음식은 두부버섯과

이, 버섯매운닭갈비, 힐링비빔밥, 산양삼 힐링전골, 오리불고기, 승경초떡갈비, 두부고르곤졸라피자 등 7종이고, 힐링 간식은 힐링김밥, 기정떡샌드위치, 씨앗박산, 파프리카브리토, 꿀약밥, 순두부도넛, 파프리카볶음면 등 15종에 이른다. 이들 음식은 화순의 대표적 농특산물을 파프리카, 두부, 도라지,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등이 재료로 사용됐다.

음식은 농림부 지정 한식 특성화대학인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김수인 교수)에서 맡아 개발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제철 맛은 담양 단감 수확

담양군 대덕면 시목마을의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가을별에 탐스럽게 익은 단감을 수확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을 제철과일인 단감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감기예방에 효과적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농민들이 가을별에 탐스럽게 익은 단감을 수확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을 제철과일인 단감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감기예방에 효과적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도로공 광주전남본부 중고 컴퓨터 125대 소외계층 지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고재석)는 '담양군 해림종합복지관과

광주시 '사랑의 그린 중고PC'사업에 각각 중고 컴퓨터 125대와 113대 등 125대를 무상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상지원한 컴퓨터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사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IT 지원사업을 지



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에는 전남지역 장애인 50명을 군 단위로 추천을 받아 IT분야 경진대회를 담양군 해림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에는 전남지역 장애인 50명을 군 단위로 추천을 받아 IT분야 경진대회를 담양군 해림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 한국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남도 대표로 참가한 화순은 '내평리 길쌈놀이'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국무총리상과 함께 1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국민속

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예술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난 1958년 처음으로 출범한 국가 규모의 민속 축제로, 올해는 전국 15개 시·도 및 이북 5도 대표 1200여명이 참가해 농악과 민요, 민속놀이 등 3개 부문에서 열린 경연을 펼쳤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내평리 길쌈놀이'는 예부터 내평리 일원의 드넓은 목밭에서 고된 농일을 하던 여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노동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대나무박람회 기념 전시회...30일까지 담빛예술창고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담빛예술창고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념 전시회'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중진작가들이 박람회의 순간 순간을 예술가적인 시선으로 포착해 전달하는 작품 기념전으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학정 이돈홍 작가의 '양죽기(養竹記)', 한희원 작가의 '담양 가는 길', 송필용 작가의 '대나무박람회-축복원에서', 임의진 작가의 '달기열매와 백제의 땅 담양' 등 박람회 기념작품들과 여운,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이번 전시회에서는 학정 이돈홍 작가의 '양죽기(養竹記)', 한희원 작가의 '담양 가는 길', 송필용 작가의 '대나무박람회-축복원에서', 임의진 작가의 '달기열매와 백제의 땅 담양' 등 박람회 기념작품들과 여운,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면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광산구 오선동 진곡산단내 5개동공장 6차선도로접 토지 8,289㎡ 건물 4,589㎡ 감평가 77억4천5백 ▶ 최저가 34억7천
-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 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9억3천5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24억6천9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3,305㎡ 건물 1,054㎡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11억3천2백 ▶ 최저가 7억9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성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